일 주 문



자살예방 초청법문

혜국 석종사 조실 스님은 9월 18일 군포 정각사에서 자살예방을 위한 특별법문을 진행했다.



천년솔향 청소년 문화제

호성 의성 고운사 주지 스님은 10월 21일 오전 10시 경내서 '제10회 천년솔향 청소년 문화제-짝꿍과 함께하는 솔향제'를 개최한다.



추석맞이 자비나눔

우송 속초 신흥사 주지 스님은 9월 25일 속초시노인복지관 광장에서 지역 저소득가정 '자비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한라산 영산대재

허운 제주 관음사 주지 스님은 10월 7일 오후 2시 미륵대불광장서 '도민화합·평화발원 한라산 영산대재'를 봉행한다.



장사익 초청 산사음악회

대오 고양 흥국사 주지 스님은 9월 23일 고양 흥국사에서 '장사익과 친구들'을 초청해 제3회 흥국사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희망광진 대축제

화평 서울 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스님은 10월 18일 오후 1시 군자동 광진광장서 '2017 행복나눔 희망광진 한마음대축제'를 개최한다.



'일상 속 중도적 지혜' 법문

원철 조계종 포교연구실장 스님은 9월 15일 대전시 동구청 강연회에서 '일상에서의 중도적 지혜'를 주제로 법문했다.



호기심 놀이터

정관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스님은 9월 30일 오전 11시 분관 무악센터서 '호기심 놀이터 한가위 대특집'을 개최한다.



청소년 돕기 자선바자회

법용 달마문화원장 스님은 9월 30일까지 부산 사하구 달마문화원에서 불우 청소년 돕기 자선바자회를 개최한다.



결손 가정 돕기 일일찻집

김국환 대한불자가수회장은 9월 16일 서울 불교방송 지하 다보커피숍에서 '2017 소년소녀 가장돕기 일일찻집'을 열었다.



"사찰음식 도시락 케이터링 서비스 전개"

Interview

사찰음식연구소 개원한 **홍승** 스님

10년간 사찰음식연구회서 교육·연구
연구소 개원 통해 '대중·산업화' 매진
도시락 개발 및 케이터링 서비스 제공
전문가 과정 통해 인재 양성에도 노력

사단법인 '홍승스님의 사찰음식연구회'를 통해 10여 년간 사찰음식 연구에 앞장서온 홍승 스님이 연구소를 개원하고 사찰음식 대중화에 직접 뛰어들었다.

홍승 스님은 (주)도반F&B와 함께 9월 21일 서울 양재동에 사찰음식연구소를 개원했다. 그동안 연구회를 통해 사찰음식의 정통성 확립 및 교육에 매진해온 홍승 스님은 이번 연구소 개원을 통해 유통사업도 전개, 사찰음식 대중화를 위해 진력할 예정이다.

"사찰음식 교육 및 강의를 통해서는 대중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찰음식을 자주 접할 수 있어야 대중적인 음식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에 따라 사찰음식연구소는 사찰음식 도시락을 개발해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불교계 및 일반기관 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케이터링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올해 안에 사찰음식 전문 판매점도 오픈할 예정이다.

홍승 스님은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사찰음식의 대중화와 산업화가 용이해질 것"이라면서 "사찰음식은 불교 콘텐츠 중 미래에 가장 각광받을 수 있는 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사찰음식 강좌도 열어 내실화를 기한다. 초심자를 위한 평일반과 주말반,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반 등 총 3개의 단기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사찰음식 전문가 양성을 위한 6개월 과정의 전문가 과정도 개설한다. 특히 전문가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사찰음식연구회 인증 강사 자격증을 발급, 일선에서 활용될 인재로 육성한다.

홍승 스님은 이러한 전문가 과정이 향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스님은 "강좌를 듣는 분 중에서 뒤늦게 요리에 대한 재능과 열정을 깨닫는 사회 은퇴자들을 많이 봤다. 이분들은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사찰음식 전문가로 양성될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추후에는 사찰음식 관련 창업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창업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홍승 스님과 도반F&B는 함께 특화된 사찰음식에도 적극 나선다. 각종 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의 건강 뿐 아니라 비만으로 고민하는 일반인들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개발하는 것. 차별화된 제품과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수요층의 현대인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취지다.

특히 스님은 올바른 식문화가 파괴되고 국민건강에 대한 식재료의 위협이 점차 커지는 요즘, 사찰음식 전파가 식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대인들은 패스트푸드나 가공식품에 속절없이 노출돼 있습니다. 이에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달걀과 닭고기, 소시지 등 육류 및 가공품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식탁을 위협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사찰음식을 통해 쾌락을 지향하는 요즘 식사습관을 개선할 수 있길 바랍니다." 1644-1803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미얀마, 로힝야족 생명·인권 보장하라"

4대 종교인, 9월 19일
주한 미얀마 대사관 앞서 기자회견

불교·개신교·가톨릭·원불교 종교인 183명은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에 대한 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로힝야 난민들에 대한 인도주의 구호 접근을 허락하고 평화적 사태 해결에 나서야한다"고 9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촉구했다.

앞서 지난 8월 미얀마 내 무슬림 소수민족 로힝야족의 거주지인 라카인 주(州)에서는 정부군과 로힝야 무장세력 간 충돌이 빚어졌다. 이후 당국은 로힝야 무장세력을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토벌작전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일반 로힝야족들이 죽거나 다쳤으며 대부분 국경을 넘어 말레이시아로 피난, 현재까지 약 45만 명의 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다.

종교인들은 "미얀마 정부는 사태 원인을 무장 세력에게만 돌리며, 유엔 등 국제사회의 우려를 '가짜뉴스에 의한 잘못된 정보'라고 폄훼하고 있다. 군 최고 사령관은 로힝야족이 불법이민자고 무장 세력의 배후이기에 군사작전이 정당하다고 발표했다"면서 "이는 사태 해결은커녕, 증오와 혐오를 부추기고 민간인에 대한 인권 유린을 자행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9월 1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불교환경연대 상임이사 법일 스님(사진 왼쪽 세번째) 등 종교인들이 사태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미얀마 정부와 로힝야족 간 폭력사태가 '종교간 갈등'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현재 폭력사태가 종교간 갈등으로 거짓 포장되어 미얀마 내에서는 이슬람 혐오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 분열이 아시아 전체 종교 갈등으로 번질까 우려된다"면서 "이 사태는 정치 이해관계에서 비롯된다. 어떠한 종교도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박아름 기자

동국대 경주캠, 2학기 개강법회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정각원(원장 법수)은 2017학년도 2학기 개강 법회를 9월 19일 교내 정각원 법당에서 봉행했다.

교수, 직원, 학생, 신도 등 3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법사로 초청된 동국대 이사 법산 스님은 "나는 과연 행복한가"라는 주제로 법문을 설했다.

이날 스님은"선인선과 악인악과를 되새기며 과연 어떻게 노력하고 행동하면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고 행동하여 행복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대중에게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장애어르신의 행복한 제주도 탐방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조석영)은 시니어리더대학 회원 36명과 함께 9월 12일부터 9월 14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에서 2017 시니어리더대학 제주도 문화탐방 '여행을 디자인하다'를 진행했다. 여행경비는 복지관 바자회 수익금 및 자원연계, 시니어리더대학 자체 모금활동 등을 통해 마련한 것이다. 노덕현 기자

광동학원 이범재 선생 공적비 건립



학교법인 광동학원은 초대 이사장인 우강 이범재(1884~1958·사진) 선생의 공적비를 건립하고, 9월 16일 남양주 광동고 대운동장에서 제막식을 거행했다.

우강 이범재 선생은 1947년 9월 12일 재단법인 광동학원 설립 당시 초대 이사장으로 추대됐다. 이후 1949년 11월 11일 운허 스님을 도와 부평리 산 99의 9번지에 교사를 세웠고, 6.25전쟁으로 교사 및 봉선사가 전소됐을 때는 임시교사를 짓고 1955년 새 교사를 준공하는 등 광동중학교의 재건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 받는다.

이에 광동학원은 12월 2일 법인 이사회를 통해 이범재 선생의 공적비 건립을 결의하고 이사장 일면 스님을 추진위원장으로 선임했다.

한편 이날 광동학원은 산하 3개 학교(남양주 광동고·의정부 광동고·광동중) 전 교직원 및 동문회, 설립사찰인 봉선사 스님들과 신도,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임직원과 함께하는 화합 한마당도 개최했다. 박아름 기자

의료,복지,전법 구현의 대표종단 한국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새로운 종단 패러다임 대전환 추진!

- 수행, 전법, 기도 중심 수행 생대계 환경 대전환
- 익숙한 종무행정 관행 결별 ~ 새로운 생각과 행동 실천
- 종단 산하 의료, 복지, 운영 지원 및 산하기관과 유대강화
- 종단사찰 장묘시설 인허가 대행 및 관련행정 역차별 개선
- 전법 의식 능력 향상을 위한 종단차원 승가교육 대학원 상설교육
- 종단 전통 통일가사 및 법계고시를 통한 종풍쇄신 구현



한국불교조계종은 종교활동을 저해하는 사회적 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이미 의료,복지,장묘 부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찰의 일자리와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생태계 사찰 경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 시각에서 보는 통찰력으로 사찰경제문제 해결능력을 발휘해 일하는 방식도 바꾸어서 한국불교조계종과 함께 제반의 스님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한국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발전을 위해 버팀목 역할을 하겠습니다. 스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사)한국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 성장의 고착화 양극화 심화에서 비롯된 많은 문제들이 사찰 존립의 구조적 위기로까지 옮겨진 상황을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한국불교 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한국불교 종단운영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불교평생교육 체제를 확립해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종단 종책사업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려의 노후 건강과 복지문제 특히 의료주거비 등 스님들의 노후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종책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소신있게 나갑시다. 그래서 국민과 중생을 위해 헌신하는 한국불교조계종의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긍지를 다시 살펴봅시다. 먼 훗날 그 어려운 시절에 한국불교조계종이 해냈다는 사자후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방에 계신 고승대덕 큰스님과 강호제현의 도반님께 감사드립니다.

불기 2561년 8월 1일 총무원장 **운 산** 합장

■ 입종서류 : 행장(이력서), 사진(반명함판) 1장, 사찰(내부, 외부) 사진, 주민등록등본
■ 모집기간 : 2017년 7월 1일부터 ~
■ 입종자격 : 종단통일가사 동참자 ※ 특혜 : (공덕 품계 인정)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 장운 운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81, 831호 두산위브파빌리온 TEL : 02)720-8270, 02)2198-5022~4, 010-4167-3666 (사무총장 도광)
FAX : 02)720-8271 Http://jogyejong.or.kr E-mail:jonggyo119@hanmail.net

한국불교조계종 종단관련 유관단체 · 사회복지법인 세계불교종단연맹복지재단 / Http://wbof.or.kr ·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연합회 / Http://kntga.or.kr ·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족종교총연합회 / Http://kroa.or.kr · 종교세계신문사 / Http://jworldnews.com